

총선 스타트... 광주·전남, 민주 독주 속 국힘 선전 관심

광주·전남 후보 72명 등록...경쟁률 광주 4.5대1·전남 3.6대1
순천 이정현, 광주 광산을 이낙연·동남을 김성환 득표율 주목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관련기사 2·3·4·5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는 총 7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광주는 4.5대1, 전남은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뒷밭'인 만큼 접전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등 수도권, 부산지역과 달리 격전의 전문감은 들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광주·전남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총선 판세는 여전히 민주당 독주가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에서 신경을 쏟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의 이정현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전방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어 향후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공천 잡음'으로 인해 민심이 일정 부분 돌아선데다, 이 후보가 순천에서 국회의원에 2차례 당선된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당선에서는 실패했지만 제19대 총선에서 '불모지'로 꼽히는 광주 서구에 출마해 38%의 득표율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각 선거구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느냐도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꼽힌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광주 동남갑과 전남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등 4개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만이 각각 등록해 두 정당 후보 간 맞대결도 관심거리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의 대결도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민 후보 측은 향후 선거일까지 지지율 역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무난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시절 국무총리와 전남지사, 국회의원 5선 등의 관록을 내세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득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 여부도 관심거리다. 무소속 후보는 광주 동남을, 북구갑, 광산갑에서 3명이 등록했고,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5명이 입후보했다.

이 가운데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경선 이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했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돼 탈락했던 김성환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광주 동남을에서 민주당 공천권을 받은 안도걸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차관 등을 거친 '예산통'으로 꼽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예산 확보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만만치 않은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입후보했다.

성별로는 광주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6명이 등록했고, 전남에서는 남성이 33명인 반면 여성은 3명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주와 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으며, 진보당은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도전장을 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3명씩과 1명씩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은 광주 2명, 전남 1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문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송영길 후보는 광주 서구갑에 도전, '육중 출마'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도 1명이 소나무당 후보로 등록했다. 기독당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1명이 입후보했고, 한국농어민당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1명이 등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22대 총선 후보 얼굴 ▶5면

KIA, 프로야구 개막전 발아구로 승리 ▶18면

건축, 도시의 미래 - 서울 리움미술관 ▶22면



프로야구 개막전 챔피언에 딱 찬 관중

23일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과 KIA의 개막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尹 “전공의 처분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대화를”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할 듯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관련 기사 6면>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당분간 진료는 지속하되, 근무시간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환자들은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될까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양 대학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최근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대응 설문조사 결과, 각 응답 교수의 83.7%와 78%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남대는 전임교원과 기금교수 등 273명 가운데 94.1%(257명)가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조선대는 161명의 의대교수 중 80.1%(129명)가 설문에 응했다. 설문결과 사직서 제출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다수가 25일(전남대 64.8%, 조선대 55.8%)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받기로 했다. 이날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날이다. 정부가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전공의 중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경우가 오는 25일인데, 이르면 26일부터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사직서 제출은 전남대의 경우 비대위가, 조선대는 의대교수 평의회가 맡는다.

양 대학의 비대위와 평의회에 제출하는 안에 전남대 의대교수의 76.7%, 조선대 의대교수 57.4%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준법근로시간 근무에 동의하는 안에도 대부분 교수가 찬성해 25일부터 진료시간도 단축(주 40시간 또는 52시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대응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 25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 의대 교수회의실에서 전남대 의대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을 하루 앞둔 24일 의료계와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 가량 전국교수협회의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의대교수협의회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모두가 웃음짓는 교육발전특구 모두가 인정하는 교육개혁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주도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작됩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 지역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